

『시기산엔기에마키』 제2권 「엔기카지의 권」에 보이는 묘렌상의 형성

오오니시 하루카 (간사이대학)

1. 제2권 「엔기카지의 권」과 고토바가키의 형성

『시기산엔기에마키(信貴山緣起繪卷)①』는 12세기 후반에 성립된 사찰 엔기에마키이다. 3권으로 만들어진 이 에마키(繪卷)에는 시기산에 들어가 비사문천을 권청(勸請)하고 다양한 기서(奇瑞)를 행한 수행승 묘렌(생물년 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나라현 이코마군에 있는 시기산초고손시지(信貴山朝護孫子寺)가 소장하고 있으며 1951년 6월 9일에 국보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나라국립박물관에 기탁한 상태이다.

본 발표에서는 제2권 「엔기카지의 권」을 다룬다. 제2권에서는 묘렌이 병석에 누워 있는 다이고 천황(885~930)의 가지기도(加持祈禱)를 하는 모습이 이야기된다. 다이고 천황에게 여러 가지 가지기도가 행해지지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자(使者)의 의뢰로 묘렌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가지기도를 시행해, 천황의 곁으로 호법동자(護法童子)를 날려 천황의 병을 치유한다. 묘렌이 다른 많은 승려들보다 뛰어난 효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묘렌이 다이고 천황을 위해 가지기도를 한 것은 『후소랴쿠키(扶桑略記)』와 『산카이키(山槐記)』에 전해진다. 거기에는 궁에 들어가 가지기도를 행했다고 되어 있으며, 천황의 병 치유를 완수한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즉 제2권은 사실(史實)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2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실로는 확인할 수 없는 묘렌상과 당시 행해진 묘렌을 포함한 일련의 가지기도에 주목하여, 묘렌의 이야기가 제2권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시기산엔기에마키』의 고토바가키(詞書)에 대해서는 『고본설화집(古本說話集)②』과 『우지슈이모노가타리(宇治拾遺物語)③』에 수록되는 「시나노쿠니 히지리노코토(信濃國聖事)」가 거의 동문(同文)관계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성립 과정을 후지타 쓰네키요는 「시기산엔기에마키의 말(詞)에 대해」¹⁾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시기산에마키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에마키 이전에 이미 일정한 형태로 정리된 설화가 있어, 그것을 거의 그대로 말(詞)로서 받아들여 에마키의 형태로 만들어냈을 것으로 추정케 하는 점이다. (중략) 에마키, 마쓰다본(松田本)(『고본설화집』의 것·인용자

1) 『미술연구』, 151, 1948, 12, 1, 루비는 인용자의 것을 따름.

注), 우지슈이와 같은 순서를 생각해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공통점을 고려하면 모두 공통적인 근원에서 나왔다고 보는 편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이다.

즉, 고토바가키는 원 엔기부미(原緣起文)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2권에서 이야기되는 묘렌상은 사실(史實)에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고토바가키가 작성될 때 묘렌상 또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묘렌의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에 대해 고찰을 이어가고자 한다.

2. 묘렌의 가지기도 - 『후소라쿠키』와 『산카이키』를 둘러싸고 -

제2권에서 이야기되는 묘렌의 다이고 천황을 위한 가지기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후소라쿠키』⁴⁾와 『산카이키』⁵⁾가 묘렌의 업적을 전하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묘렌상에 대한 영향이 지적되어 왔다. 『후소라쿠키』 제24 이서 엔초(延長) 8년(930) 8월 19일조에는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의수협지문. 소하내국지귀산사주사미명련. 영후좌병위진. 위가지후어전.²⁾

이에 대해 시모미세 시즈이치는 「시기산엔기의 내용」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설화의 현실성은 후소라쿠키의 글에서 잘 드러난다. (중략) 즉, 후소라쿠키는 명백히 궁에 들어갔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 움직이지 않는 사실을 덮으면서까지, 엔기는 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음을 반복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분명히 가지의 사실에 부회하여, 이를 설화화해 버린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 『산카이키』 초칸(長寛) 3년(1156) 6월 28일조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입팔일을사 흑인왕, 신원어너유불경, 금일석옥성인밀참입봉구어흥이소, 각입일초, 상모수신보봉 구□□성인료전시병운운, 자평중납언피겨운운, □□천황확린지시, 소신귀산명련성인, 영□□□ 원봉급지시, 소삼룡성인, (생략)⁴⁾

이에 대해 오키시 스미오는 「시기산엔기에마키의 성립을 둘러싼 역사적 여러 조건 - 동일 에마키 연구의 서설로서 - 」⁵⁾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2) 구로사카 가쓰미편, 『후소라쿠키 제왕편년기』(『신정증보 국사대계』 제12권, 요시카와코분칸, 1999, 8.

3) 『화설』 22, 1938, 10, 1, 루비는 인용자에 따름.

4) 증보 「사료대성」 간행회편, 『산카이키 1』(『증보 「사료대성」』, 린센서점, 1965, 9.)

특히, 이 기사로 미루어 보건대, 묘렌은 (시기산에 있으면서 천황을 가지한) 에마키의 주인공으로서보다도 (손이소조(尊意僧正)의 가지 도중에 몰래 좌병위부(左兵衛府)로 출두한) 후소라쿠키의 수행승으로 연상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게다가 후소라쿠키의 ‘시기산 주사미 묘렌’은 산카이키에서는 ‘시기산 묘렌 성인’이라고 되어 있어 그에 대한 존숭의 마음은 한층 강해졌다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다.

이들 묘렌의 업적과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전해지는 업적을 각색하여 제2권에 이야기되는 것 같은 고승 묘렌상이 만들어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후소라쿠키』는 일기뿐 아니라 여러 문헌에서 초록되고 있으므로 사실(史實)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산카이키』는 일기이기는 하지만, 묘렌의 이름이 후세에 예시되는 형태로 전해지는 점에서 모두 전승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제2권의 내용 그 자체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기산엔기에마키』가 성립되었다고 생각되는 원정기에는 이미 묘렌의 전기가 전해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해 두고 싶다.

3. 다이고 천황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행해진 가지기도

지금까지 묘렌의 가지기도에 주목해왔지만, 당시 다이고 천황에게 가지기도⁶⁾를 한 것은 묘렌만이 아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발췌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 6월 26일 『아사바쇼(阿婆縛抄)⑥』 제195 「메이쇼나도라쿠텐(明匠等略伝)」 범성방중승정
어청량전피해퇴운, (중략) 화상의칙후금중. 조금백일. 매야즉가지. 황제어몽운. 불동명왕화
염성맹성가지집신. 몽내존중각후문타라니성.⁷⁾
- 6월 29일 『고콘초몬쥬(古今著聞集)⑦』 신기 제1-3
정승범사칙을 받들어 청량전에 있어 염불하고 있사오니⁸⁾
- 7월 21일 『니혼라쿠키(日本紀略)⑧』
청천태아도리오인어상령전. 조비오단수법.⁹⁾
- 8월 9일 『후소라쿠키(扶桑略記)』 제24 이서
피정도자오백인사. 의어약야.¹⁰⁾
- 8월 21일 『후소라쿠키(扶桑略記)』 제24 이서

5) 『미술연구』, 177, 1955, 2, 5, 루비는 인용자에 따름.

6) 다케이 아키오, 『도켄조닝 명도기』 · 『일장몽기』 비교(속) : 다이고 천황 붕어 전후 · 다이고사 · 승려 조스~양서가 「숨긴」 것」(『인문학』 172, 2002, 11, 20.)

7) 다카구스 준지로, 모치즈키 신코편, 『대일본 불교전서 41』, 유세이도출판부, 1932, 11.

8) 나가쓰미 야스아키, 시마다 이사오 교주 『고콘초몬쥬』(『일본 고전문학 대계 84』, 이와나미서점, 1966, 3.)

9) 구로사카 가쓰미편, 『일본기략 후편 백련초』(『신정증보 국사대계』 제11권, 요시카와코분칸, 2000, 7.)

10) 구로사카 앞의 책, 주ii

자금일칠째일유어수법사. 의어약야. 승이십삼인.¹¹⁾

- 8월 25일 『니혼키랴쿠(日本紀略)』

우대신어천태산령독금강반약경일백권. 의기어불여야.¹²⁾

- 8월 이 달 『가초요세이(花鳥余情)⑨』 12 - 다카마즈라

이부왕기 (중략) 작원문요기장곡사관세음원어병평유장조백단관음상우봉경일면정명십만정¹³⁾

- 9월 22일 『도지초자부닌(東寺長者補任)』

권륜사회리, (중략) 어광룡사령수공작경법, (중략) 청승입일구칠개일불단봉사,¹⁴⁾

- 9월 28일 『리부오키(李部王記⑩)』

입팔일, 신각법황어대지원봉방상, (중략) 법황림어좌방협식, 가지금유령,¹⁵⁾

- 9월29일 『다이고지 잡사기(醍醐寺雜事記)⑪』

원어병대점. 우대신승조. 영장인소어칠사수어풍송.¹⁶⁾

이처럼 엔초 8년(930)에는 천황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몇 번이나 가지기도가 시행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들 가운데 묘렌에 의한 가지기도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후소랴쿠키』와 『산카이키』에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권과 같은 묘렌상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원래 엔기란 창작된 것이며, 또 사찰 에마키인 『시기산엔기에마키』에서 주인공인 묘렌이 영웅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왜 묘렌이 다루어지고, 제2권에서 언급되는 것과 같은 묘렌상이 형성된 것일까.

4. 『시기산엔기에마키』에서의 묘렌상의 형성

『시기산엔기에마키』에 나오는 묘렌상의 형성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곤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⑬』 제11권 「수행승 묘렌 처음으로 시기산을 받드는 것(修行僧明練始建信貴山語) 제36」 (이하 『곤자쿠(今昔)수록화』)가 있다. 표기는 다르나, 수행승인 묘렌이 등장해 시기산을 수행 장소로 정하고 수행에 힘쓴 모습이 이야기되고 있다.

『시기산엔기에마키』 제1권 「야마자키초자의 권(山崎長者卷)」에서는 부자가, 날아온 바리때에 시주를 하지 않고 바리때를 공간에 넣어버리자, 바리때가 공간을 싣고 날아가 버린다. 당황한 부자 일행이 바리때와 공간을 쫓아 도착한 산중에서 묘렌에게 공간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자, 묘렌은 공간만 남겨두고 안에 든 쌀가마니는 모두 부자의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장면이 이야기되고 있다. 또 제1권은 그림만을 전하고 있고 고토바가키는 빠져있다.

11) 위와 같음.

12) 구로사카, 앞의책, 주ix

13) 나카노 고이치 편, 『가초요세이』, 겐지와비초 겐지모노가타리노우치후신조조 겐고비결 구전초 (『겐지모노가타리 고주석총간』 제2권, 무사시노서원, 1978, 12.)

14) 국서관행회 편, 『속속 군서류중』 제2, 속군서류중완성회, 1969, 12.

15) 요네다 유스케, 요시오카 마사유키 교정, 『사료찬집 이부왕기』, 속군서류중완성회, 1974, 7.

16) 하나와 호키이치 편, 『군서류중 제25집 잡부』, 속군서류중완성회, 1960, 9.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곤자쿠』 수록화에서 “야마토 카와치의 양국 근처의 사람, 몸소 이 일을 들고, 각자 힘을 모아 이 당을 만들자 곧 완성되었다.¹⁷⁾”라고 수행에 힘쓰는 묘렌을 경모하는 재가 사람들이 묘렌에게 건물을 기진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야마토카와치의 양국 근처 사람’은 제1권에 등장하는 부자와 여러 가지 표정으로 그려진 재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한다. 따라서 줄고¹⁸⁾에서는 제1권에 기록된 에피소드가 『곤자쿠』 수록화와 동화(同話)의 기술을 참조하여, 이야기화된 점을 지적했다. 즉 『곤자쿠』 수록화에 등장하는 묘렌이 제1권에 이야기되는 묘렌의 모델이 되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지금까지 『후소라쿠키』와 『산카이키』에 당시 다이고 천황을 위해 가지기도를 했던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전해지는 묘렌의 업적을 바탕으로, 제2권에서 이야기되는 묘렌상의 형성 과정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제1권에 나오는 묘렌상의 형성과정도 고려하면, 『시기산엔기에마키』에서 이야기되는 묘렌상은, 여럿으로 전해지는 묘렌이라는 인물을 모델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권에서 이야기되는 묘렌은 여러 모델 중, 다이고 천황에게 가지기도를 행한 묘렌이라는 인물이 다루어졌고, 제1권부터 계속 영웅화된 묘렌상을 이야기하기 위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17) 마부치 카즈오, 쿠니사마 후미마로, 이나가키 타이치 교주·역 『곤자쿠모노가타리슈①』(『신편 일 본고전문학전집 35』, 쇼가쿠칸, 1999, 4.)

18) 「국보 『시기산엔기에마키』 제1권, 「야마자키초자의 권」에 관한 하나의 고찰」, 『국문학』 제104호, 2020, 3, 1.

【용어해설】

①나라국립박물관은 The National Treasure Illustrated Scrolls of the Legends of Shigisan과 영문번역. ②1126~1131년경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설화집, 편자 불명. ③1210~1221년경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설화집, 편자 불명. ④진무(神武) 천황 때부터 호리카와(堀河) 천황(1079~1107)의 1094년 3월 2일까지의 일본 역사를 불교 중심으로 약술. 고엔(皇円)(생몰년 미상), 성립연대 불명. ⑤나카야마 다다치카(1131~1195)의 일기. 기사는 1151~1185년에 이르고, 일문(逸文)은 1194년에 이른다. ⑥히에이산(比叡山)의 고쿠라구보쇼조(極樂房承澄)(1205~1282)찬의 대밀서. 1275년 성립, 이후 증보되었다. ⑦다치바나노 나리스에(橘成季) 저, 1254년에 성립된 설화집. ⑧신대~고이치조(後一條) 천황(1008~1036)에 이르는 편년체 역사서. 성립연대·편자 모두 불명. ⑨이치조 가네요시(1402~1481) 저, 1472년 성립.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주석서. ⑩현존하는 책 중, 발표자는 고후(果宝)(1306~1362)등이 찬한 것을 인용. 823년~1634년까지 매년마다 도지(東寺) 안팎에서 벌어진 중요 사항, 부자 4명의 승려 이름·연보 등을 상술. ⑪다이고(醍醐) 천황의 아들 시게아키라 신노(重明親王)(906~954)의 일기. 원본·사본 모두 전해지지 않고, 일문(逸文)이 다른 문헌에서 전해지고만 있다. ⑫다이고지(醍醐寺)의 승려 게이엔(慶延)(생몰년 미상)가 다이고지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모은 책. 헤이안(平安) 시대의 다이고지 역사를 연대학적으로 만든 것으로, 다이고지에 관한 잡다한 일을 분류 편찬한 것이 있으며, 후자 15권 중 13권까지는 1186년 이전 성립되었다. ⑬12세기 전반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설화집. 저자는 미나모토 다카쿠니(源隆國)(1004~1077), 설이 있지만 이설도 있으며 정설은 없다.